

제71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29일)

## 어린이박물관 교육상자

고지훈, 하하배움터(어린이박물관 입구)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에서는 매년 ‘교육상자’라는 어린이 체험교구를 제작합니다. 교육상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고 또 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백제금동대향로, 2020년 조선시대 평생도, 2021년에는 도자기를 주제로 2022년은 익산 미륵사지를 주제로 교육상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큐대에서 소개할 교육상자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교육상자는 ‘도자’를 다각도로 접근한 교육체험용 전시상자로 국립광주박물관(브랜드:아시아도자문화)과 공동 기획하여 이동형 교육상자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각 상자는 제작(흙과 불의 과학), 감상(도자기의 아름다움), 쓰임(도자기를 찾아라), 교류(바다를 건넌 도자기)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과 아날로그 콘텐츠를 균형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실물 체험용 콘텐츠와 터치스크린과 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기계장치를 이용한 오토마타 장치까지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상자에 담아내어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체험하면서 도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에 참여하시면 어린이박물관 도자기 교육상자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림1. 도자기 교육상자 구성

제71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29일)

## 젊은 세대가 바라본 박물관

엄채현, 120호 대한제국실 18:00~18:30

2022년 8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협회(ICOM) 총회에서 새롭게 박물관을 정의했습니다.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전시 및 전달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영구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접근하기 쉽고 포용적이며 다양성(divers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역 사회의 참여로 운영되고 교육, 즐거움(enjoyment) 및 지식 확장을 위해 다양한 관객 경험을 제공한다.” \* 향후 정식 국문 번역문 완성될 예정임

이전과 달라진 점은 다양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포용적인 단어가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박물관의 역할 외에 박물관은 대중에게 즐거움, 재미를 전달해야 하는 공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게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이 되기 위해 2022년, TBWA 주니어보드라는 대학생 15명의 그룹과 협업하였습니다. 이들은 박물관이 오래되어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듯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착안, ‘다친 마음에 박물관이 위로를 건넨다’라는 콘셉트로 ‘마음복원소’라는 감성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플랫폼(MODU)에서 ‘마음복원소’를 해보고 추천 코스로 박물관을 색다른 시각에서 둘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마음복원소’는 진로, 취업, 사랑 등 다양한 고민의 이유와 나의 마음 상태를 선택하면, 대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위로의 말과 박물관 속 유물, 방문지 등을 추천합니다. 역사적 지식 대신 감성적인 문구로 내게 말을 걸어오는 박물관 속 유물은 엄숙한 문화유산이 아닌 내 맘을 이해하는 친구로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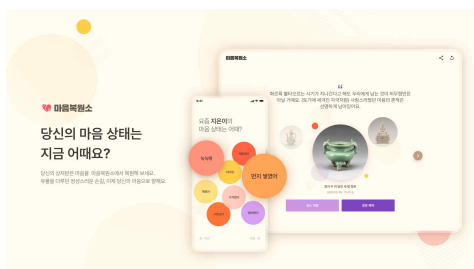


그림. 마음복원소 메인화면

예를 들어 ‘사랑’ 때문에 ‘구멍 난 마음’이 ‘80%’ 훼손됐다고 선택하면 “친구야 밥 먹었니? 며칠째 한숨만 삼켰잖아. 이제 우리 밥 한술 먹자.” (술가락/상설전시관 1층/고려 1실),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포의 용기.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진심” (미르폭포/야외/동문 부근) 등을 방문 코스로 알려줍니다.

## 개화기의 신문물 - 사진과 인쇄술

김승익, 120호 대한제국실 19:00~19:30

1876년 개항 이후 20세기 초까지 조선은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근대적 변화의 중심에서 외교 사절과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교육, 의료, 통신,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왕실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서구의 열강에서 온 군인이나 상인, 선교사들이 가져온 각종 기계와 서적과 인쇄물을 통해서도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익숙한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고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여 변화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새로운 문물의 하나로 도입된 사진[寫眞]은 기록과 재현, 복제 가능성을 갖춘 첨단 시각 매체로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1883년 서울에 사진관이 처음 들어선 이후 왕실이나 개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유행했고 사진은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지위와 현재의 모습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의 보급은 초상화 제작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내면적 세계를 드러내는 전통 초상화는 뛰어난 재현력을 지닌 사진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었습니다. 석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은 초상화 제작에 사진을 활용했던 대표적인 작가로 고종 황제의 어진을 그리는 등 조선말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초상화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서양식 인쇄술은 사진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문물 중 하나입니다. 기계화된 인쇄술에 의한 출판물 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사진·삽화 같은 복제 이미지를 대량으로 유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등장은 근대적 시각 환경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문과 더불어 각종 단행본과 잡지들이 발간되었는데, 새로운 감각의 표지 그림이나 서체, 삽화, 장정 도안을 보여주면서 대중 매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채용신, <고종 어진>, 비단에 채색, 동원2590



제71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3월 29일)

## 일본의 금병풍

이원진, 310호 일본실 19:00~19:30

일본은 병풍이 일본회화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주요 회화 작품이 병풍으로 제작된 예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병풍은 아스카시대(飛鳥時代, 593~710)에 신라를 통해 왔다고 전해집니다. 주로 접이식 병풍의 형태로 당초 궁정과 사원에서 사용되었으나,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92)부터 귀족 저택 실내의 가림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건축 공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병풍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헤이안시대 이후부터 시작되며, 실용품인 동시에 실내 장식으로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병풍에서 그림이 실내 공간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에, 그림의 주제 또한 삼국 중에서 가장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기능을 중시하였기에, 일본에서는 공간을 구획하면서 실내를 장식하는 그림이 병풍뿐만 아니라, 벽화, 후스마에(襖繪) 등 다양하였으며, 이를 통틀어 ‘장병화障屏畫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병풍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유형은 화면에 금박을 입힌 금병풍입니다. 금병풍은 명과 조선통신사 사절단 답례품 등 주변과의 외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만큼 오래전부터 일본 문화를 알리는 외교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풍 중에서도 제작 비중이 높습니다. 금병풍이 성립하는 시기는 일본 병풍이 ‘2척 1쌍(二隻一雙)’ 형식으로 정형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서로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일본 금병풍의 형식과 특징을 개관하면서 일본실에서 전시 중인 금병풍 <가을 풀>을 소개합니다.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 1776~1861), <가을 풀>(부분), 19세기, 6곡曲 병풍 1쌍, 종이에 금지 채색, 구3366